

## 서평

## キーワードで読む經濟地理學(주요어로 읽는 경제지리학)

經濟地理學會 編, 2018, 東京: 原書房(하라쇼보), 711쪽.

韓柱成\*

이 책은 1954년에 결성된 일본경제지리학회 60주년을 맞아 기획된 것으로, 76명의 집필자가 4개 장에 40개 주요어(key word)와 그것들과 관련된 31개 칼럼을 덧붙여 구성한 것으로, 각 칼럼은 해당 주요어의 뒤쪽에 붙여 그 내용을 보충했다. 각 주요어의 내용구성은 대체로 정의, 연구사, 사례연구 및 문제점과 전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I장(기초이론에서 새로운 이론 개념으로)은 13개의 주요어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유럽과 미국 및 일본의 경제지리학 발달사를 살펴본 경제지리학, 또 입지정보를 살펴 본 입지, 그리고 집적과 외부경제의 발달과 전망을 기술했다. 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와의 관계를 각 국가의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제도적인 틀 속에서 파악한 지역경제, 경제지역의 구조와 경제의 지역구조 관계로서의 지역구조, 국제적 불균등발전을 강조한 불평등 발전을 주요어로 담았다. 그리고 순환적 인과관계와 수송비의 증감 및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중·분산의 관계를 설명한 공간경제학,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의 연구발달을 설명한 정보화, 경제지리학에서 정보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서비스 경제도 들었다. 이에 덧붙여 P. Dicken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 생산순환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및 주체를 중시한 네트워크 접근방법과 글로벌 경제의 전체상을 살핀 글로벌리제이션, 다국적 기업

의 각종 이론과 기업입지 전개에서 공급사슬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국적 기업, 또 지식의 창조성과 근접성 및 제도와 거버넌스(governance)의 공간정책을 살펴본 지역혁신, 그리고 인지적 근접성(cognitive proximity)<sup>1)</sup>과 집적의 다양성을 언급한 지식경제가 주요어로 선정되었다.

제II장(산업공간의 진화)은 13개의 주요어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본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주산지 형성을 살펴보고 내부구조와 정책을 논한 產地형성, 식료(food)시스템의 배경과 발달 및 식품의 질적·양적 측면의 접근방법에 관한 식료시스템, 산촌진흥법에 의거해 임야율이 75% 이상인 중산간 지역을 들었다. 또 일본의 전통적인 로컬산업[地場(じ-ば)産業(local industry)], 자본주의의 발전과 공업지역과의 관계를 논한 공업지역, 산업입지분석에서 노동의 역할과 합의의 구체화를 제기한 공간적 분업, 또 노동시장으로서 통근권과 신규 졸업자의 노동력 공급권 및 계절적 노동시장에 관한 지역노동 시장도 선정됐다. 그리고 중심지이론의 진화와 한계를 언급한 상업공간, 유통의 학술사와 그 논의를 시기별로 설명한 유통, 화물유통의 연구사 및 유통지역론과 지역 구조론에서의 물류, 또 교통현상을 대상과 수단으로 구분하고, 교통시장의 분류와 지역교통과제의 접근방법을 언급한 교통도 들었다. 나아가 금융활동의 중층적 지역 구조와 금융의 지역구조 및 지역금융의 방법론을 소개한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금융, 그리고 경제의 국제화·서비스화·정보화에 대응한 공간정비와 대도시의 驛과 그 주변의 개발사업에 주목한 부동산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유통에서는 소매업 商流만을 언급해 유통이라기 보다는 상류로 주요어를 삼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제Ⅲ장(도시와 사회)은 9개의 주요어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W. Christaller와 A.R. Pred의 이론에서 도시의 상하·지배종속관계를 논하고, 경제적 중추관리 기능에 의한 도시시스템을 사례로 언급한 도시시스템, 도시의 단편화에서 탈중심화, 탈영역화와 재영역화로 도시나 도시공간의 도시성의 개념에 탈구축·재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20세기의 도시공간, 세계도시의 역사적 논의 및 개발도상국의 메가시티(megacity)와 국가와의 관계를 언급한 세계도시도 제시되었다. 또 경제활동에서 非신고전적 요소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밝히고, 문화산업론적·도시론적 연구의 흐름을 살펴 문화산업의 분업체계에서 관계성의 지리적 형성과 영향을 파악한 문화산업, 또 고도경제성장기에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취업·진학·인구이동 및 이동의 경제적·인구학적 요인을 언급한 인구도 채택되었다. 그리고 V.A. Pestoff의 복지공급(복지혼합)의 트라이앵글<sup>2)</sup>을 설명한 복지, 논쟁의 계보인 原初論<sup>3)</sup>과 도구론<sup>4)</sup>, 주관주의<sup>5)</sup>와 객관주의<sup>6)</sup> 및 사회구축주의<sup>7)</sup>의 접근방법을 설명한 에스니시티(ethnicity),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발달과정과 경제지리학에서의 도입과 의의, 지역의 여성노동시장과 국제이동의 여성화를 살핀 젠더(gender), 그리고 관광현상을 둘러싼 논지의 관점을 視差개념과 자본주의적 축적의 측면 및 이동과 관련시킨 관광도 선택되었다.

제Ⅳ장(정책)은 5개의 주요어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역정책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일본과 영국의 지역정책의 진화과정을 개관한 지역정책,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재정을 복지의 관점에서 일본을 4시기로 나누어 지방재정의 지역간 격차를 살펴 본 지방행재정을 다루었다. 또 경제지리학의 대상으로서 국민경제의 지역구조는 생산배치론, 경제지역론, 지역경제정책

론, 국토이용론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국토이용론은 토지이용론, 자원론, 재해·공해론으로 이루어진다는 국토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경제지리학과 동일본대지진과의 관계, 자원론·재해론의 계보 및 환경산업과 입지론과 함께 폐기물과 정맥산업연구를 언급한 환경정책, 마지막으로 지역구조론과의 논쟁과 내생적 발전의 개념 및 그 계보와 논의를 살펴보고, 사례지역 모델을 파악해 과제와 실천을 언급한 내생적 발전이 선정되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주요어란 '정보·통신데이터를 검색할 때에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라고 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각 국가의 경제지리학 분야 연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단초가 되는 것이 주요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주요어의 개념과 관련된 이론과 실증적 연구를 논의하는 수준에서 학문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요한 것을 주요어로 선정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개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장시켜 문제점과 전망도 기술해 2010년대 중반의 일본 경제지리학계가 안고 있는 지역적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가 되는 개념을 타 부문의 성과까지 포함시킨 아이디어로 주요어를 채택했다. 이런 면에서 일본경제지리학의 발달과정을 폭 넓은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어 경제지리학 전공자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너무 폭넓은 개념을 주요어로 정한 나머지 제Ⅰ장에서 경제지리학, 지역경제, 또 제Ⅱ장에서 상업공간, 유통, 교통, 금융, 부동산, 인구, 관광 등은 하위 차원에서 더 정교한 주요어를 선정했으면 하고, 또 경제지리학 인접분야의 주요 개념까지 주요어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제Ⅲ장에서의 도시시스템, 20세기의 도시공간, 세계도시, 인구, 에스니시티,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도시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경제활동 그 자체는 아니다. 이 가운데 도시시스템은 20세기에 들어와 주요 도시가 관리의 중심지가 되었으므로 중추관리 기능으로서 경제의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경제적 중추관리 기능을 주요어로 선정했으면 한다. 그리고 개념을 다른

장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어로서는 제Ⅰ장의 지역과 국가 간의 불균형발전은 제Ⅳ장으로, 또 문화산업은 20세기 후반에 지식기반산업으로 집적해 지역화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개념이기에 제Ⅰ장으로, 그리고 지역재정의 차이를 반영하는 복지는 제Ⅳ장으로 옮겼으면 한다. 한편 최근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인 주요어로서 제도주의, 조절이론, 진화경제지리학, 네트워크론, 아상블라주(asssemblage), 관계론적 접근방법, 공업분야의 클러스터와 스마트 전문화, 유통분야의 상품사슬, 교통분야의 모빌리티(mobility), 공간적 상호작용 등은 이 책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것도 있지만 주요어로 고려했으면 한다.

Aoyama *et al.* (2011)이 출간한 경제지리학의 개념들에서는 주요어가 23개였으나, 이 책은 보다 많았고 칼럼도 제시했으나, 두 책의 비슷한 주요어는 11개 정도였다. 그러나 이 책의 주요어가 지역적 개념이라면 Aoyama *et al.*의 책은 개념 중심으로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지형성, 과소화가 진행된 중산간지역, 로컬산업 등은 일본 경제지리학만의 주요어로 언급한 것이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을 읽고 한국의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주요어를 선정한다면 어떤 개념들로 구성해야 할지 생각하게끔 한다.

## 주

- 1) B. Nooteboom이 제기한 것으로 상호 이해의 가능성이 크면 그 근접성이 높고, 지식의 이전은 원활하게 된다. 그래서 언어,

- 관행, 규범, 가치관 등의 제도적·문화적인 공통성·유사성이 인지적 근접성을 높혀 지식의 이전과 학습을 촉진시킨다.
- 2) 공적부문의 공적 기관인 국가, 비공식부문인 가구, 가족 등의 공동체, 민간영리부문인 민간기업의 시장으로, 이들에 의해 복합체인 민간비영리부문인 자발적인(voluntary) 비영리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 3) 감정이나 유대에 의거한 정태적인 논의를 말한다.
- 4) 정치경제적인 이익이나 목적과 결합해 에스니시티가 다양한 동태적인 점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 5)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사람들에 의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 6) 에스닉(ethnic) 집단에 내재된 각 속성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 7)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집단을 만드는 것은 가능한 한 그들과 생물학적·문화적인 실체와 다른 사회적·정치적인 구축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참고문헌

Aoyama, Y., Murphy, J. T. and Hanson, S., 2011, *Key Concepts in Economic Geography*, New York: Sage.

교신: 韓柱成, 05507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신천동, 파크리오), 전화: 02-416-0316, 이메일: jshan@chungbuk.ac.kr  
Correspondence: Ju-Seong Han, Parkrio, Shincheon-dong, 435 Olympic-ro, Songpa-gu, Seoul city, 05507 Korea, phone: +82-2-416-0316, e-mail: jshan@chungbuk.ac.kr

최초투고일 2020년 07월 07일  
수정일 2020년 08월 05일  
최종접수일 2020년 08월 13일